

일본어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발음상의 제문제 -- phonemic unit와 prosody, 특히 pitch에 대하여 --

노마 히데키 [野間 秀樹]

東京外國語大學 助教授,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요약>

본고는 일본어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발음상의 제문제를 논한다. 문제점은 초급, 중급의 단계별로 고찰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학습자의 이론적인 인식상의 문제와 학습자의 실제 발음 실천상의 문제를 구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모음, 자음, 음운변화 및 표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발음의 문제 등, 음운단위에 관한 요소, 그리고 높낮이(pitch)와 억양(intonation) 등, 운율적인 요소를 다루었다. 서울말의 높낮이에 대한 기술도 시도하였다.

1. 들어가기

본고의 목적은 일본어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나타나는 발음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에 있다. 이 문제점은 학습의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로 나누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음에 대한 학습자의 이론적인 인식상의 문제와 학습자의 실제 발음 실천상의 문제점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청자나 교사가 인식에서의 오류와 발음 실천상의 오류를 혼동하면 발음교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두 가지는 명백히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인 인식의 문제는 바로 교재와 지도자 측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순수히 음성학적인 문제와 음운론적인 인식의 문제를 구별해서 다루어야 하고 학습자의 문제와 교재, 교사의 문제를 구별해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음 교육에서는 그러한 여러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이론적인 인식 recognition (theory)		
실천적인 발음 production (practice)		

2. 음운단위(phonematic unit) 혹은 분절적인 요소들(segmental unit)

2-1. 모음

단모음8개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와 [오]의 구별, [으]와 [우]의 구별이다. [어]와 [오]는 일본어화자는 [才]로 발음하기 쉽고, [으]와 [우]는 [ウ]로 발음하기 쉽다. 듣기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들이다. 특히 [어]에 대해서는 학습서에서조차 부정확한 기술을 간혹 볼 수 있을 만큼 교육자 및 교재 개발자 측의 문제도 크다. 즉 초급 단계에서의 발음에 대한 인식, 지식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일 경우도 많은 것이다. [어]와 [오]에

관해서는 지식으로서의 파악 단계는 일단 올바르게 넘어갈 수 있어도 실천 단계에서의 오류도 많이 나타난다.

2-2. 자음

자음 중, 초성에서는 평음(예사소리), 격음(거센소리), 경음(된소리)의 구별이 어렵다. 이 3가지 중, 일본어화자에게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가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고 화자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격음과 경음, 특히 경음이 인식 자체가 가장 어렵지만, 일단 개념을 파악하고 나면 비교적 쉽게 숙달하는 학습자도 많다. 중급 정도가 되면 오히려 평음을 경음이나 격음으로 발음해 버리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일본어의 음절이 거의 모두가 개음절이기 때문에 종성은 전체적으로 어렵다. 폐음절을 개음절로 발음하는 오류는 초급 단계에서 많고, [ㄱ][ㄴ][ㅇ][ㄹ] 뒤에 모음이 출현하는 오류는 중급 단계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단어의 형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 초급에서는 이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 중급 단계에서는 문장의 형식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하고 교정할 기회가 적어진다. 초급 단계에서는 손의 동작과 함께 [ㄱ][ㄴ] 등의 발음을 연습시키는 것도 효과적이다.

"방이"와 "박이"처럼, [ㅇ]과 [ㄱ] 뒤에 모음이 연속될 경우, 그 구별을 못하는 학습자도 많다. 이것은 일본어에서의 "力行鼻濁音"을 가진 방언과 가지지 않는 방언의 차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음운변화 및 표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발음의 문제

음운변화에서는 "꽃만"[꼇만], "부엌만"[부엌만]와 같은 구강음의 비음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완전한 학습자가 초급 단계에는 많다. "법률"[법률] 등 유음의 비음화는 인식 단계에서는 더 어렵다.

표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발음의 문제는 모어화자에게는 단순한 발음(조음)의 문제로 인식되기 쉽지만 사실은 초급 단계에서의 개념파악의 문제일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담고"[담꼬], "신고"[신꼬]와 같은 자음어간 용언에 있어서의 경음화는 경음으로 발음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학습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교재 중에도 "먹고"[먹꼬]는 종성 [ㄱ]이 있으므로 "고"를 [꼬]로 발음한다는 식의 설명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표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발음의 문제로서는 한자어와 합성어에 나타나는 경음화와 [ㄴ]의 출현이 큰 문제이다. 한자어에서 음절말 [ㄹ] 뒤에 오는 평음 /비/과 /기/은 "결별", "결국"처럼 그대로 평음으로 발음되고 "발달"[발딸], "결정"[결쩡], "결심"[결쌌]처럼 /ㄷ/, /ㅈ/, /ㅅ/는 경음화된다. 이에 대해서는 초급에서의 원칙적인 인식이 불완전한 학습자가 많을 뿐더러 모어화자의 연구자 사이에서도 이 원칙이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상태이다. "한자"[한짜]와 "한 자"의 구별이나 "외과"[외파]와 같은 한자어에서의 예외적인 경음화는 해당되는 한자가 체현되어 있으므로 중급 단계에서 하나 하나 인식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길가"[길까], "비빔밥"[비빔뻬]과 같은 고유어에서의 경음화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고유어에서의 이 경음화의 법칙화에 대한 연구가 기다려진다. "문 옆"[문녘], "집 옆"[집녘], "수학여행"[수향녀행] 등, 표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ㄴ]의 출현과 그로 인

한 구강음의 비음화도 인식 그 자체가 어렵다. 간노[菅野裕臣]외(1988)는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농음화와 [ㄴ]의 출현을 모든 예문에 기호로 표시하였다. 앞으로 교재에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다른 음운변화규칙에 대해서는 간노[菅野裕臣](1981) 및 權在淑(1995:207-225), 문자와 발음에 관한 교재 작성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마[野間秀樹](1996:55-58)를 참조.

3. 운율(prosody) 혹은 초분절적인 요소들(suprasegmental unit)

운율(prosody) 혹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들은 음운단위 혹은 분절적인 요소들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각인상의 형성에 관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어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어 학습자 사이에서도 단음의 발음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저나 억양 등의 습득이 불충분해서 청자에게 한국어다운 인상, 자연스러운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의미전달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은 물론 교사 중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특히 중급 이상의 학습자의 경우에는 발음상의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학습의 인식 단계에서부터 거의 백지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고저(pitch)와 억양(intonation), 리듬(rhythm)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time), 그리고 강세(stress)의 문제는 우선 기술적인 연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3-1. 고저(pitch)

3-1-1. 고저 記述의 전망

서울말은 고저악센트를 가지는 언어가 아니라서 고저(pitch)의 記述의 연구는 등한시 되어 왔다. 서울말은 고저로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지는 않지만, 고저는 단어마다 반드시 수반되는 중요한 요소, 그것도 단어마다 정해져 있는 요소로 보인다.

고저가 모어화자와 차이가 있으면, 의미는 통하지만 한국어답게 들리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고저 문제는 segmental한 요소에만 집중되어 온 기존의 연구에 의지해서는 한국어다운 한국어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서울말의 고저 해명은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음절을 단위로 하는 고저의 기술은 어느 정도 법칙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간단히 그 전망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3-1-2. 2음절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장음을 보유하는 서울말 화자의 경우, 고유어의 2음절로 되는 단어를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pitch 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모음, 평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제1음절이 낮고 제2음절이 높은 경향이 있다:

<평음> [LH] 가슴, 가을, 거울, 겨울, 고기, 구름, 그릇, 기침, 김치, 나라, 나무, 노래, 다리(脚, 橋), 다섯, 다음, 마루, 마음, 머리, 모래, 무릎, 바늘, 바다, 바람, 벌레, 보리, 부처, 부엌, 종이, 조카, 잘못, 저녁

<모음> [LH] 아들, 아래, 아침, 어깨, 어제, 얼굴, 여덟, 여름, 오늘, 우리, 이삭, 이제, 이름, 임금

(2) 경음, 격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제1음절이 높고 제2음절이 낮은 경향이 있다. "ㅎ"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

<경음> [HL] 까닭, 꼬리, 꼬마, 꾸중, 끼니

<격음> [HL] 처음, 치마, 칼날, 코피, 큰집, 토끼

(3) 현재의 젊은 층에서는 거의 소실된 장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제1음절은 저에서 고 내지는 저에서 중간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고 제2음절이 고에서 저로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의 발음은 이렇지만, 학습자의 인식으로서는 [RH] 내지는 [LH] 정도로 파악하면 충분할 것이다:

<장음> [RH]/[LH] :가게, :담배, :돼지, :사람, :제비

이 조사에서는 "말씀"[LH]이 단음으로 실현되었다. 현재의 일본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장음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지식만을 제공하고 있다.

한자어도 고유어와 유사한 경향을 가진다:

<평음> [LH] 고향, 국적, 기차, 내일, 논문, 다방, 중국, 지금

<모음> [LH] 일본

<격음> [HL] 친구, 파도, 평화, 필요

<장음> [RH] :편지

3-1-3. 3음절의 경우

3음절의 고유어 명사는 제2음절이 가장 높고 제3음절이 두 번째로 높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즉 실제의 음성 실현은 [LHM] 내지는 [LHF] 정도인데, [LHL]로 이해해도 될지도 모른다. :

<3음절> [LHM]/[LHL] 가운데, 고양이 그저께, 마지막, 비둘기, 아버지, 어머니, 저고리

<3음절 장음> [RMF] :호랑이

3-1-4. 격어미(격조사)와의 결합

이들 2음절, 3음절 단어에 격어미(격조사) "-가/-이"가 붙으면 그 격어미가 가장 높게 발음된다. 이 경향은 "가슴이"처럼 단어의 형식으로 발음할 때보다 "가슴이 아파."와 같이 문장 형식으로 발음할 때, 즉 억양을 수반할 때에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3-1-5. 1음절의 경우

1음절의 명사는 [L], [H], [R]의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도 평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L], 경음이나 격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H]인 경향이 있다:

<평음> [L] 값(值), 길(道), 눈(目), 말(馬), 목(喉), 비(雨), 소(牛), 집(家)

<경음, 격음> [H] 딸(娘), 땀(汗), 칼(刀), 코(鼻), 톱(鋸), 피(血), 해(陽), 힘(力)

<장음> [R] :개(犬), :눈(雪), :돌(石), :말(語), :새(鳥)

3-1-6. 용언의 경우

용언은 자음 어간의 여러가지 접미사 등이 결합된 "용언복합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다. 용언복합체에 있어서는 마지막 음절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받 「어 \	받아 「요 \	받았어 「요 \
받으세 「요 \	받으셨어 「요 \	받으셨겠어 「요 \
받겠어 「요 \	받으셨겠더라고 「요 \	받 「다 \
받으라 「고 \	받으시 「쥬 \	받으십니 「다 \

3-1-7. 서울말의 고저와 방언 그리고 중세 한국어의

pitch accent를 가지고 있었던 중세 한국어의accent(소위 "성조")체계는 간노[菅野裕臣](1983)에서 그 원칙은 거의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현대 서울말의 pitch는 중세 한국어의 accent보다 훨씬 단순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말의 이 고저는 경상도방언의 고저악센트(소위 "성조")와 어느 정도의 대조를 보이는 것인지가 흥미로운 과제이다.

본고의 조사는 아주 국한된 소규모의 조사였고, 그리고40대의 소위 순 서울말의 화자에 대한 조사였다.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젊은 세대의 서울말은 장음의 소실을 비롯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적으로도 음향음성학적인 연구를 포함한 보다 더 폭넓은 조사가 기다려진다.

3-2. 억양(intonation)

한국어의 억양의 전모는 아직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억양에 관해서는 그 모두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소위 선택(판정)의문문과 의문사(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반어)의 억양의 구별. 이것은 일반적인 억양의 문제와는 달리, 의미전달에 지장이 있는 문제라서 교재 등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어 있지만 학습자는 습득하기가 어렵다. "오늘은 뭐 먹었어요?" "어디 가요?" 등의 문장이 그 예이다. 이것은 중급에서도 문제가 된다.

(2) "해요체" 문장의 억양에 의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구별. 초급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내일은 학교 가요.", "내일은 학교 가요?", "내일은 학교 가요!" 등이다.

(3) 휴지(pause) 직전의 억양. 특히 "선생님은" 처럼 어미(조사) "-는/-은"을 가진 어절 말에 강세를 두고 높게 발음하면서 아울러 어말의 [ㄴ]을 일본어의 [ン]으로 발음하거나 [ㄴ] 뒤에 모음을 붙여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음절수까지 늘어나는 현상도 많다. 이것은 리듬의 문제와 복합된 문제이다.

억양과 고저는 학습자의 방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연구가 진행되면 방언마다의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3. 리듬(rhythm) 기타

시간(time), 속도(rate), 휴지(pause), 강세(stress)등을 묶어서 여기서 취급하기로 한다. 이것들은 그 모두가 고저와 억양 문제, 그리고segmental한 요소와 복합되면서 발음상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서 "하십니까"를 [하시므니까]로, "선생님"을 [ソンセンニム]로 발음하는 등, 종성에 모음이 첨가되는 오류는 단음의 문제로서 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리듬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절수의 리듬과 손으로 박자를 맞추는 등의 동작과 함께 연습을 시키면, 단음에 대해서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발음이 개선된다. 요컨대 일본어의 모라(mora) 주도의 리듬의 파악과 한국어의 음절 주도의 리듬의 파악의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어의 모라에 관해서는 강인선(1996)을 참조.

음의 지속시간,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의 자음의 지속시간의 차이 문제도 있을 듯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연구를 기다리기로 한다.

발음 전반에 걸치는 문제인데, 발성의 문제도 의외로 중요하다. 작은 소리로 입 안에서만 우물거리는 학습자는 상당히 많아 연습에서는 거듭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제의 대화 장면에서도 청자를 어려워하거나 의식하는 경우에는 특히 큰 문제가 되어 의사 전달에도 영향을 미칠 경우가 많다.

4. 마무리

이상과 같은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특히 서울말의 철저한 기술적 연구와 그것에 입각한 규칙화의 연구,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과를 도입한 교재의 개발과 교사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의 pitch에 관한 조사에는 필자의 오래된 벗, 미술작가·사진작가인 金壯燮 씨의 도움을 받았다. 1953년, 서울 명륜동 출생. 부모님은 물론 10대조 정도까지 다 서울 출신이었다고 한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간노[菅野裕臣](1981) "朝鮮語の入門" 白水社, 도쿄
 간노[菅野裕臣](1983) "中期朝鮮語のアクセントについて" 제3회 朝鮮語研究會 發表要旨, 朝鮮語研究會, 도쿄
 간노[菅野裕臣]의(1988) "コスモス朝和辭典" 白水社, 도쿄
 강인선(1996) '일본어 발음 교육의 한 문제(II) - 운율적 특성을 중심으로' "언어학" 제18호, 한국언어학회, pp.3-29, 서울
 김선철(1994) '국어 악센트 연구의 방향' "언어학" 제16호, 한국언어학회, pp.3-21, 서울
 권在淑(1995) "これからの朝鮮語" 三修社, 도쿄
 金完鎭(1973)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서울
 노마[野間秀樹](199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가' "말글생활" 제3호, 160-171, 서울
 노마[野間秀樹](1996)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 - 일본어화자의 경우' "語學研究所論集" 第1號, 東京外國語大學 語學研究所, pp.51-81, 도쿄
 우메다[梅田博之](1983) "韓國語의 音聲學的 研究" 螢雪出版社, 서울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語學研究" 第10卷 第2號, 서울大學校 語學研究所, pp.15-25, 서울
 이현복(1976) '한국어 단어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제1호, 한국언어학회, pp.131-143, 서울
 이현복(1985) "한국어 표준발음" 교육문화사, 서울
 鄭然燦(1972) '韓國語의 聲調, 其의 特徵と 變遷' "韓" 第1卷 第10號, 도쿄
 鄭寅燮(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다' "중앙대학교 논문집" 10, 중앙대학교